정읍시 가축 과밀사육 집중 지도·단속

악취 민원 2년만에 2배 이상 증가
면적당 초과사육 농가 과태료
1차 250만원, 3차 1000만원

유진섭 정읍시장이 정읍시 덕척면 양돈단지를 방문해 현황을 듣고 있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인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와 과잉 사육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사육밀도 관리를 강화한다.

30일 정읍시에 따르면 여름철 축산악취 기승을 막기 위해 6월부터 단위 면적당 초과사육 농가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이 실시된다.

정읍에서는 축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가축분뇨 발생량과 악취 관련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축분뇨는 2018년 130만t에서 2020년 140만t으로 늘었고 악취 관련 민원도 2018년 150건에서 2020년 330건으로 급증했다.

이런 현상은 일부 농가에서 축산법상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초과해 가축을 과잉 사육하며 가축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사 악취와 사육밀도 초과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을 위반하면 축산업 허가 농가를 기준으로 1차 25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등록 농가의 경우에도 앞선 기준 40%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육밀도 계산은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서 '적정사육 면적계산기'를 이용해 손쉽게 알아볼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을 잘 이행해 축산업의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 많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순창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창립총회

장류산업 관광 콘텐츠 개발 집중

'장류산업의 메카' 순창군이 전통 장류를 관광산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고자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순창군은 지난 28일 군청에서 황숙주 군수를 비롯한 재단 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창발효테마파크관리운영재단'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총회에서는 이사 임명과 설립취지문 채택, 정관,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심의·의결했다.

순창군은 지난 2016년부터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일원에 과학, 발효, 미생물 등을 주제로 '어린이들의 꿈이 현실이 되는 테마형 놀이터'를 조성하고 있다.

여기에 문화·관광 콘텐츠를 입혀 발효산업을 서비스화하고 관광콘텐츠 개발과 관련 사업분야 전문인력양성, 시설관리 등을 위해 순창발효테마파크관리운영재단을 창립하기로 했다.

재단 설립은을 위해 군은 설립 타당성 용역과 전라북도 및 순창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을 구성했으며 이후 전라북도의 설립허가 절차를 거쳐 6월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재단은 설립 초기 재단의 안정 운영과 관광객 유입사업 및 발효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프로그램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재단 이사장을 맡은 황숙주 순창군수는 "순창발효테마파크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150여명의 고용창출은 물론 관광객 500만명이라는 꿈도 현실이 될 것"이라며 "재단은 행정뿐만 아니라 군민과 함께 순창을 재미있는 놀이터로 만들고 지역민에게는 소득증대를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남원시 미꾸라지 속살로 만든 '춘향 떡갈비' 개발

남원농기센터·추어요리협회
추어탕의 맛과 영양 그대로

'추어탕'으로 유명한 남원에서 미꾸라지 속살로 만든 '춘향떡갈비'가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30일 남원시에 따르면 남원시농업기술센터와 남원추어요리업협의회가 공동으로 '남원 추어탕'의 신메뉴인 '춘향 떡갈비'를 출시했다.

남원 추어탕은 특유의 맛과 영양, 지리산 고을 남원의 청정 이미지와 결합되며 1950년대부터 남원지역의 대표먹거리로 유명세를 떨쳐 왔다.

추어탕 뿐만 아니라 추어숙회, 튀김, 전골 등이 함께 인기를 끌며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남원의 추어탕산업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와 추어요리업협의회는 남원 추어탕의 맛과 영양을 알리고자 고민하던 끝에 남녀노소가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신메뉴 '춘향 떡갈비'를 개발해 냈다.

미꾸라지로 만들어 추어탕에서 변신한 '춘향 떡갈비'는 미꾸라지 속살과 돼지고기가 혼합됐고 소화불량과 아토피의 걱정을 덜어내기 위해 밀가루 전분 대신 쌀을 첨가했다.

영양성과 기호성이 모두 충족된 '춘향 떡갈비'는 천편일률적인 떡갈비가 아닌 남원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가 됐다.

남원지역 20여개의 추어탕 전문 업소에서 1인분에 1만원으로 만날 수 있으며 현재 고객 평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관광객들의 기호에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태수 남원추어요리업협의회 회장은 "춘향 떡갈비가 남원을 찾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남원 추어탕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대 흐름을 반영해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을 남원 추어탕의 진화는 계속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소방서 소방대원들이 지난 29일 선운사 대웅전에서 화재 대응을 위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고창소방서 사찰 3개소 대상 합동소방훈련

고창소방서는 지난 29일 선운사 대웅전 등 지역 사찰 3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중요 목조문화재의 지리적·구조적 특성 등을 고려한 초기대응 시스템 구축과 자위 소방능력 제고로 화재진압 대응역량을 강화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훈련에서는 비상소화장치 등 자체소방시설 활용 훈련과 소방출동로 확보, 인명대피 및 문화재 반출 우선 훈련 설계, 산림 및 문화재로 연소 확대 시 대응능력 함양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백승기 고창소방서장은 "산에 위치한 목조 문화재는 화재 발생 시 화재가 확산될 우려가 크고 초기대응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합동소방훈련을 통해 문제점 및 대책을 강구해 확실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온라인 발대식

아동권리 침해 조사 등 활동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가 지난 29일 온라인 발대식〈사진〉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에 거주하는 12세~19세 어린이와 청소년 44명으로 결성된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는 향후 아동권리 침해사례 조사와 포토 보이스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부의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주변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어린이·청소년의회 활동이 행복도시 군산을 건설하는 초석이 되고 지방자치를 경험하고 민주 시민으로서 역량을 키워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익산시 3개동 철도 폐선 부지 활용 연구용역

익산시가 오산면·송학동·인화동 철도 폐선 부지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연구용역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다.

전주대 산학협력단은 대상지 현황과 주변 여건, 사례분석을 통해 '오산리역' 재현, 산책로·자전거길 조성 등의 활용 방안을 찾게된다.

이번 용역은 익산~대야 구간 복선전철 건설로 인한 송학동, 오산면, 동익산역 인근 인화동 지역의 철도 유휴부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용역을 통해 철도로 인해 단절된 공간을 이어 지역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폐선부지가 더 이상 지역 흉물이 아닌 지역 거점 문화휴식공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시민 중심의 활용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철저히 분석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